

“지구상에 다케시마는 없다”

허준영 경찰청장, 독도 전격 방문



“지구상에 다케시마는 없습니
다. 독도만 있을 뿐입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
시마의 날’의 제정에 항의하는
반일 집회.시위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허준영 경찰청장이 지난
달 19일 역대 치안총수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허 청장은 이날 오전 유홍준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독도를
찾아 초도순시를 하고 경비대원
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철뚝같은 경계
태세를 주문하며 이 같이 밝혔
다.

허 청장은 이날 독도 방문 목
적에 대해 “우리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민간인의 독도 입도가
허용될 경우의 안전문제를 점검
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또 방문 소감으로
“독도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
꼈다”며 “경찰이 밤낮으로 지키
고 있고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경
북경찰청 울릉경비대 소속 독도
경비대원들을 일일이 격려한 뒤
등대와 해안초소, 집안시설 등
독도 곳곳을 둘러보면서 경비상
태를 점검했다.

또 경비근무 중 순직한 대원

들의 묘비를 찾아 추모식을 가
졌고 대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선 대원들의 건강을 기원
하는 건배를 제안하기도 했다.

허 청장은 경비대원들에게
“독도근무는 국가와 국민을 생
각할 수 있는 기회”라며 “현재
의 민감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
히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열
심히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독도는 우리 경찰이
확실하고도 철저히 지키겠다”며
“국민들에게서는 맑은 일을 열심
히 해서 빨리 부강한 나라를 만
들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현 독도경비대장(경
위)은 허 청장에게 독도의 현황
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동쪽
끝을 지키는 자부심으로 한치
의 빈틈없이 지키л 것을 모두에
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허 청장
은 이날 대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 격려했다.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정부
가 독도에 대해 주권 선언을 한
이래 이듬해 4월부터 독도의용수
비대가 조직돼 경비근무를 맡아
오다 1956년부터는 울릉경찰서가
이를 인수했으며 현재는 경북지
방청 울릉경비대 소속 독도경비
대가 경계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서 예산 치안여건별로 차등화

인력·장비 등에 따라 달라

전국 233개 경찰서의 예산이
관할지역의 치안여건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운영비 예산은 지금껏
1·2·3급지로 나눠져 지급됐으
나 앞으로는 각 경찰서의 인력
과 장비, 치안여건 등에 따라 모
든 경찰서 예산이 달라진다.

예컨대 지금까지 특별시나 광
역시에 있거나 관할 인구가 25
만명 이상인 경찰서는 모두 1급
지로 분류돼 동일한 운영비를
지급받았으나 더 이상 이러한
‘예산평등’ 관행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소속 경찰이 800여
명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90여
명인 울산 중부경찰서와 시간의
수당, 숙직비, 출장비, 서장 관공
비 등이 비슷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해택을 받게된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기획예
산처가 모든 정부 부처의 세부
예산을 편성하던 방식에서 벗어
나 각 부처가 정해진 한도 내에
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도
입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톱·다운 방식
이 도입되면 경찰청의 예산 편
성 자율성이 훨씬 높아져 성과
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각
경찰서의 예산을 다르게 편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문 연구기관에 일선
경찰서의 운영비 실태 조사를
의뢰해 연구가 끝나면 내년부터
새로운 예산방식을 적용할 방침
이다.

인권보호·학교폭력 해결에 최우선

경찰청, 전국 지휘부회의 및 워크숍

경찰청이 최근 학교폭력 근절과
인권보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청장과 본청 경무관급 이상 간
부 등이 참석한 경찰 지휘부 회의를
갖는 한편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
해 ‘혁신성공을 위한 지휘관 워크
숍’을 가졌다.

이날 허준영 경찰청장은 훈시를
통해 『금년이 국립경찰 창설 60주년
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지난 60년의
功過를 성찰하고 새로운 경찰(New
Police)로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
며 역사적·시대적 소명의식을 강
조하는 한편 ‘권력기관이 불사기관
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견
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
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전제, 『현행
검찰과 수사관 조정협의를 진행되
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체사
고 없도록 조직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허준영 경찰청장은 ‘앞으로
'인권'과 '학교폭력' 문제에 최우선
순위를 둘 방침이며 , 학교폭력 예
방 및 근절이 국가의 소중환 인적자

원을 보호하는 가장 보람있는 일이
고 일진회와 같은 학교폭력 조직에
게는 ‘위축’을, 선량한 학생들에게
는 ‘안심’을, 교사에게는 ‘권위(교
권)’ 확립이라는 추진방향을 제시했
다.
한편 허 청장은 인권과 관련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
권의식의 함양도 중요하며, 특히 금
년이 ‘범죄피해자 보호의 원년’임을
유념해줄 것』을 당부한 후 , 『인권
최우선의 직무수행이 완전히 뿌리
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최상의 치안서비스 구현한다

경찰 창설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경찰청은 창설 6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 경찰의 功過를 겸허히 평가
하고 새로운 미래경찰로 재도약하
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경찰청은 최근 創警 60
주년 기념사업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념사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국민과 함께
하는 기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기념사업
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은 경찰 창
설 60주년인 2005년을 맞아 근현대
경찰사를 재조명하여 반성할 것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계승할 것은 계
승함으로써 잔존하는 부정적 이미
지를 털어내고 경찰의 역량을 결집
시키는 한편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
로 활용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
창출」을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
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국민 속의 경찰이미
지를 구현하기 위한』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기념사업의 첫번
째 작업으로 창경 60주년을 기념하
고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 분위
기 조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념로그 공모에 나섰다.

경찰서 관할구역 전면 재조정

주민생활 편의의 우선으로

경찰청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는
않는 경찰서 관할구역을 전면 재조정 하
기로 했다.

이와관련 경찰청은 최근 14개 지
방경찰청 기획계장 회의를 열어 ‘수
요자 중심의 관할구역 조정 및 명칭
변경’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추진 과
정상의 예산 문제점과 대처 방안 등
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관할구역 조
정과 더불어 경찰서 명칭도 자치단
체와 통일시키는 한편 현재 확일적
새로운 예산방식을 적용할 방침
이다.

현재 경찰서 관할과 명칭은 대체
적으로 일반 행정구역과 일치하나
일부 지역에서 불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1개 區
를 3개 경찰서가 분할해서 관할하는
등 치안관할과 행정구역이 많은 지
역에서 불일치하고 있다. (전국 233
개 경찰서 중 76개 경찰서가 일반
행정과 관할구역 불일치)

그 동안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
구역이 불일치함으로써 같은 구민
체와 통일시키는 한편 현재 확일적
새로운 예산방식을 적용할 방침
이다.

고가품 고유번호 회수제 추진

절도예방·도난품 회수 기대

고가품의 절도 예방과 도난물품
회수를 위한 ‘고유번호 회수제’가
경찰청의 주도로 추진된다.

고유번호 회수제는 고가품을 구
입할 때 물품 외부나 안쪽에 소유
주만 알고 있는 고유번호를 새겨
넣어 분실 시 쉽게 되찾을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이다.

경찰은 도난사건 발생시 물품
종류와 고유번호를 신고받는다면
수사는 물론, 도난물품 회수가 과
거에 비해 한결 쉬울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장물 유통 가능성이 높은 중고
도매상이나 유통점에 도난품의 기
종·특징과 함께 고유번호를 미리
알려줬다가 해당 물품이 발견되면
곧바로 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고유번호 등록이 널리 확산
될 경우 절도범이 처분이 힘든 것
을 우려해 고유번호가 찍힌 물품
에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
아 ‘절도예방’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절도
범 검거에만 신경썼을 뿐 도난물
품 회수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 시민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난품 회수율에 적극 나설 방침이
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의 일선 지구대 등
을 통해 지역 상인과 주민들에게
고유번호 회수제를 널리 홍보하고,
도난물품 회수 실적이 뛰어난 경
찰관은 특진심사시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경기 제2경찰청 31일 의정부서 개청

경기 북부지역의 치안을 맡게 될 경기도 제2경찰청이 지난 31일 오후 3시 의정부시 금오동 삼성 홀플러스 맞은 편 대송프라자 입시청사 3층에서 개청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 갔다.

경기 제2경찰청은 경기청 4부장(홍순원 경무관)이 제2청장직을 맡으며 수사, 생활안전, 경비.교통 등 3개과와 수사,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생활안전, 생활질서, 경무, 경비, 교통 등 8개 계로 이뤄져 있다.

경기 제2경찰청은 경기북부 10개 경찰서를 관할하게 되며 지령실(112)은 운영되지 않으나, 24시간 자체 상황 유지 체제를 갖추고 있다.

경찰 과거사규명위 민간조사관 8명 채용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과거 의혹사건의 진상조사 활동을 담당할 민간조사관 8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채용기간은 1년으로 신청자 22명 중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채용됐으며 조사실무교육을 마친 후 경찰조사관들과 합동으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채용된 조사관은 역사학이나 정치학, 법학 등을 전공한 노홍래(30세), 김선호(32세), 이주환(35세), 부미선(31세.여), 권재록(41세)씨 등 5명과 시민운동가 박형호(44세)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기 조사관 엄기연(47세)씨, 군 출신의 정삼석(45세)씨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이나 경험과 함께 투철한 과거사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는지를 채용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농촌사랑 1사 1촌운동’ 동참

경찰청은 28일 주민친화적 경찰상을 구현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농촌사랑 1사(社) 1촌(村)운동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사1촌운동은 1개 기업이나 단체가 1개 농촌과 자매결연을 하고 도시와 농촌의 지속적인 교류를 강화하자는 운동이다.

이에 따라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경기 포천군 군내면 직두1리 마을을 방문, 윤봉현 마을 이장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과 직두1리의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허 청장은 결연식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주민친화적 경찰상의 구현에 1사1촌 운동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지역 특산물 구매와 농촌 일손돕기, 농촌사랑예금 통장 개설, 매월 28일 ‘탄남의 날’ 운영 등 직두1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4개 지방경찰청과 경찰병원, 경찰대 등의 경찰청 부속기관들도 농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농촌 특산물 팔아주기 등 도농 교류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인권침해 감시’ 시민인권보호단 모집

경찰청은 최근 일선경찰의 인권침해 행위 등을 감시할 시민인권보호단을 이번달 10일까지 전국 지방청별로 10여명씩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인권보호단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인사와 일반시민들로 구성돼 일선 경찰서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인권침해 등을 감시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청 본청에는 인권수호위원회가 신설돼 경찰의 인권정책 수립 및 집행 활동을 감독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안재경 경찰청 범죄피해자대책실장은 “인권경찰로의 탈바꿈은 꾸준하고 일관된 감독과 교육 활동이 이뤄져야 가능하며 시민인권보호단은 그러한 역할을 앞장서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에 경찰수련원 신축 건의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4일 제주도에 전국 경찰 가족이 활동할 수 있는 경찰수련원을 신축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김인옥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제주를 방문한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육군, 해군, 해양경찰 등이 모두 제주에 수련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경찰수련원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 경찰은 대지 2만3천㎡, 지하 1층, 지상 3층, 45실 규모의 수련원 신축에 87억9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 장관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경찰청 사업으로 추진하면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퇴직을 앞둔 경찰동지에게 알려 드립니다

■ 회원등록

- 회원등록은 거주지 관할 경우와 지역회(대부분 경찰서 청사내 위치)또는 본인이 원하는 관할 지역회에 회원등록신청서를 경력증명서 1통(퇴직당시 근무관서장 발행)과 명함판 사진 1매와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회비는 년간 12,000원이며 2년분 회비를 납부하면 2년간 유효한 회원증을 발급함
- 다만 평생회원증은 회비가 200,000원임, 신청용지는 시도회·지역회에 비치되어 있음

■ 경우신문 구독

- 구독신청은 경우회 중앙회, 시도회, 지역회 등에 전화로 구독 신청을 하면 자택(직장)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구독료는 년 1회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지로용지(송금자 성명 명기)에 의거 구독료를 납부하면 됨

- 구독료 : 연간구독료 - 1만원
평생구독료 - 10만원(80세 이상은 무료, 70세 이상 80세 이하는 5만원, 65세 이상 70세 이하는 7만원, 65세이하 10만원)

※ 입금계좌 (우체국 : 012468-0151196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문의전화 : 02-2234-1881

■ 무궁화회(골프모임)가입— 10년 이상 재직하고 회원등록 필한 자에 한함

- 무궁화회 등록신청서를 경력증명서 1통(퇴직 당시 근무 관서장 발행)첨부
경우회 중앙회에 입회비(500,000원), 년회비(200,000원)와 함께 제출하면 경우회가 주주로 되어 공동경영하는 기흥골프장(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 소재 36홀 규모)의 회원자격으로 월1회(매월 세번째 월요일 06:00~07:00)이용할 수 있음
- 입회비 입금 계좌번호 : 제일은행 276-20-108132 현성일
- ※ 입회비 납부시는 납부사실을 경우회 중앙회 사업부장에 연락바람
- 등록신청서 용지는 경우회 중앙회(사업부)에 비치하고 있으며 전화가입 신청하면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신청용지를 우송해 드립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시는 명함판 1매, 반명함판 사진 2매, 경우회원증 사본 1부 첨부
- 부킹은 매월 1일 ~3일까지 09:00부터 경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킹메뉴를 클릭 신청(문의전화 : 02)2234-1881)

■ 경우산악회 가입

- 입회비 30,000원(연회비 30,000원)을 경우산악회 총무(경우회 홍보과장)에게 계좌납부(제일은행 276-20-174047 안오모)하거나 산악등산일에 현장에서 직접 납부하면 됨
- 계좌납부시는 전화로 총무에게 연락바람(문의전화 : 02)2234-1881)
- 산행일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행 예정지 등은 사전에 통지함

대한민국 재향경우회